

이렇게 들었다

화합

성냄과 원한 대중을 어지럽힌다

'진실로 화합이야말로 진정한 생활공동체나 한 조직체의 생명이다' 부처님은 <대반열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지만 지난해 말 발생했던 조계종 분규의 상처는 아직도 깨끗이 아물지 않았다. 최근 조계종이 내린 영축총림해제 결의에 대해 울산 지법이 가처분결정을 내릴 때 따라 대다수 불자들은 지난번과 같은 분규가 또 일어날까 걱정이 크다. 많은 불자들은 더 이상의 잡음이 없는 화합된 승가의 모습을 바라고 있다.

화합에 대한 부처님 말씀을 들어본다.

(편진자 주)

■ 많은 사람이 한데 모여 살아도 서로 잘 이해하고 동정하는 마음이 없으면 진정한 우정이 생기지 않는다. 진정한 생활 공동체에는 그 자체를 밝혀주는 신념과 지혜가 있어서 사람들이 서로 믿고 화합한다. 진실로 화합이야말로 진정한 생활공동체나 한 조직체의 생명이다. <대반열반경>

■ 만일 성냄과 원한을 가지고 저렇게 대중을 어지럽히는 것이 있거든 마땅히 화합한 중을 모아 널리 방편을 베풀어 이 대중의 근본을 뽑아라. 너희들은 또 마땅히 생각을 오로지 하여 스스로 관할하라. 만일 맺힌 원한이 이미 다했거든 마땅히 다시 방편으로써 그 마음을 막아 다시 일어나게 하지 말라. 비구들이여, 성내고 뒤돌어져 자상하지 못하고 인색하고 질투하며 교활하고 허약하여 스스로 자기 소견에 의해 그릇 받은 것을 버리지 못하고 사견(邪見)에 해매고 변견(邊見)과 함께 하는 것도 또한 그와 같은 것이다. <중집경>

■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범부는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다툼을 일으켜, 진실하

다니 않다니 하는 대립관념에 빠져있기 일쑤다. 그러나 나는 세상에서 다툼을 일으키는 일이 없으니, 현상세계의 실상을 살피고 알고 있기 때문이다. <승사유법천소문경>

■ 끝은 것을 남에게 양보하고 잘못을 이끌어 자기에게 양하게 하면, 다툼 것이 없어진다. <열반경>

■ '사문 고오타마는 두 말을 버려 없애어 이 말로 자를 괴란(壞亂)하지 않고 저 말로 이를 괴란하지 않으며 중생이 있으면 잘 화합시키고 이미 화합하면 그 환희를 더하며 말하는 바가 있으면 화합을 떠나지 않고 성실함이 마음에 들어가 말하는 바는 때를 안다. 또 고오타마는 악구(惡口)를 버렸다. 만일 추한 말로 사람을 손상하면 그의 결원(結怨)을 더 하고 원함과 미움을 자라게 하는 것인데 그런 추한 말은 아주 하지 않고 언제나 착한 말로써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여 여러 사람의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바로써 염증을 내지 않는다. <범동경>

■ 부처님께서 코삼비국의 코시타 동산에 계

실 때였다. 그 때 구심이란 비구는 항상 싸우기를 좋아해서 악행을 범하고 남을 앞에 두고 욕을 하며 칼이나 몽둥이를 잘 휘둘렀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아침 구심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비구들은 싸우지 말고 서로 시비하지 말라. 너희들은 한 스승 밑에서 배웠으니 서로 화합하기를 우유와 물이 잘 섞이듯 하라." 부처님께서 옛 인연담을 이끌어 말씀하시면서, '남의 잘하는 것도 보지 말고, 잘못하는 것도 보지 말라'고 하시면서 계승으로 말씀하셨다. "서로 치고 싸우지도 말고 말로 다투지도 말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가엾이 여겨 모든 생령에게 근심 걱정을 끼치지 않는 것 내가 항상 칭찬하는 것이로다." <중일이탈경>

■ 다섯가지 역죄(逆罪)가 있으니 이것이 가장 큰 악행이다. 다섯가지란 무엇인가? 고의로 아버지를 죽이는 일, 어머니를 죽이는 일, 아라한을 죽이는 일, 교단의 화합을 깨어 분열시키는 일, 부처님의 몸을 상하여 피가 나게 하는 일이다. 이 죄를 지은 자는 무간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대방광심론경>

해외동포 포용하자



정진우
경블론 간사

우리 민족처럼 많은 아픔을 간직한 나라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수천년의 외세 침략은 물론이거니와 그 처절했던 일제 36년간 식민의 경험, 동족상잔의 비극, 그리고 현대에 접어들었던 그 많은 차별과 배타 등등. 이제 새 천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우리들은 찬찬히 그 아픔을 되새기고 감싸안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그러나 최근에 우리나라 국회에서 통과시킨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우리가 과연 새천년을 맞이할 자격이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번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자 또는 그 직계 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이 정하는 자'로 외국국적 동포를 규정하여 그들에 대해 출입국의 자유, 2년까지의 체류, 6개월 이상 국내에 머무르때 의료보험의 혜택 등이 주어진다. 그렇지만 애석하게도 이 법에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 해외로 나간 중국 조선족(220만명), 옛 소련의 고려인(50만명), 조선국적의 재일동포(15만명) 등이 제외되었다. 이 법에서 제외된 동포들은 그야말로 우리 민족의 근현대사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우리 동포들에게 우리들은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가난하고 힘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외면해 버린다면 그것이 과연 정당할 것인가 진지하게 정부당국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한국을 조국으로 생각하고 찾아오는 많은 중국 조선족 동포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힘겨운 일을 하고 있다. 그들은 한국인도 중국인도 아닌 무국적자로 한국에서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다. 그들에게 우리들이 해 줄 수 있는 일은 따뜻한 위로와 함께 나누는 정이며 그들의 권리를 찾게 해주는 것이다.

목소리

터키난민을 돕자



김재일
동산본교회장

오늘날 지구촌 시대를 살고있는 많은 인류가 민족과 국가간에 서로 이해하고 어려울 때 온정을 베풀면 지구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한다. 최근 터키에서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여 수만명의 사람들이 죽고 부상당했다. 그리고 집을 잃은 사람, 마을을 잃은 사람 등 의식주 모두를 잃은 사람이 수십만명에 이르렀다. 지진이라는 지구의 대 재앙앞에 터키국민들은 뉘를 놓고 바라만 볼 뿐 저 땅속깊이 묻힌 가족의 시신은 찾을 생 각도 못하고 다친 부상자들은 의약품이 부족하여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 산 사람들도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곳을 다 잃었다. 도로는 유실되고 땅은 뒤집혀져 말 그대로 입체적으로 아수라장이었다. 터키 지진소식을 TV, 신문 등으로만 보고있는 불자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행여나 TV뉴스속의 터키 지진소식을 접하며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무감각적으로 흘러보내는 국민이 되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민나라의, 나와는 관계없는 남의 나라의 일로만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터키는 한 국민당 1만5천명의 군인을 파병하여 부처님을 도왔고 그 전적으로 고귀한 생명을 바쳤던 나라이다. 이제 그들에게 어려움이 닥쳤을때 우리가 보답을 해야할 때가 아닌가 한다. 이런 일을 보고 돕고자 하는 것은 종교인이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일반인도 능히 마음을 내어주며 특히 부처님의 사상과 행적을 따르고 대승불교를 표방하고 자리아타와 동체대비를 강조하는 우리 불자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본다. 그들을 우리 일처럼 나의 일처럼 도와야 하며 측은지심을 내야 한다. 지난 94~95년 아프리카 르완다난민 돕기를 전개하여 부처님의 대자대비정신을 실현하였듯이 지진으로 실의에 빠져있는 터키인들에게 우리 불자들이 앞장서서 용기를 심어주었으면 한다.

목소리

이은자 (취재1부 기자)

최근 조계종 포교원이 실시한 '청소년 종교의식조사' 결과는 불교계에 청신호를 밝혀주었다. 불교는 노령인구가 많고 청소년종교인은 오래 개신교가 많다는 선입견을 깨 것이다. 물론 가톨릭까지 합하면 기독교가 불교보다 훨씬 많다. 그러나 불교 청소년인구가 4년전 통계청 전체인구조사보다 8%정도 늘어났다는 결과에 대해 불교의 미래에 희망을 심어주고 있다고 반가워하는 이가 상당수다.

매년 이런 조사를 해서 불교포교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해 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소년 인구가 늘어남에는 여러 요인이 있었지만 파라미터 청소년협회, 청소년교회연합회 등이 결성돼 청소년 포교를 열심히 한 결과라는데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번 결과가 3,123명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였기에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보다는 정확도가 높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주변적 사안에서 벗어

청소년 포교

나 한발짝 더 나아가 미래불교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자신이 불자라고 대답한 청소년가운데 70.9%가 신생활을 거의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왜일까? 어린이와 청소년법회가 시작됐던 80년대초나 21세기를 코앞에 둔 지금이나 어린이·청소년법회의 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한문경전, 구태의연한 법문내용 등은 사이버시대의 주역으로 살아가는 넷(net)세대인 청소년들을 사찰의 태두리안으로 끌어들이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들에게 다가가려면 사찰이 변해야하고 지도법사들이 개인 의식을 가져야 한다. 청소년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의 개발은 여전히 과제로만 남아있다.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포교, 힙합과 랩으로 전하는 신세대 찬불가등 청소년을 찾아가는 포교방안을 마련하자. 청소년불자가 늘었다고 이에 만족해서는 안된다. 한사람의 청소년불자가 미래불교를 좌우한다는 인식을 갖고 미래불교의 초석을 다지는 일에 중단전체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마침 대한 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가 인터넷불교어린이웹진 '연꽃'을 준비한다는 소식은 그래서 더욱 반갑다.

이영식(대구시 달서구 두류1동)

독자의 소리

종합적이고 내실있는 문화재 보존정책 절실

이번 현대불교에서 거의 모든 목조 문화재에 퍼져있다는 흰개미의 피해 기사를 읽고 깜짝 놀랐다. 사찰문화재가 도난당했다는 기사도 심심치 않게 보게되는데 그때마다 가슴이 아프다. 불교문화재는 불교민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민족의 것이요 후손대대로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보물이다. 그러한 귀중한 불교문화재가 관계부처의 예산 및 인력타당성에서 하나하나 훼손 또는 멸실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그러나 과연 인력과 예산만의 문제일까. 얼마전 신라시대 금관이 미국전시회에 출품되는 과정에서 미국측의 부주의로 파손됐다는 기사를 읽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또 유럽문화전에 참가한 국보 감산사부처님은 전시되지도 못한 채 그냥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다. 문화재 일각에선 수백점에 달하는 국보급 문화재 진품을 해외로 보내는 것은 위험하다고 반대했으나 외교논리가 우선돼 묵살되었다는 얘기도 들린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문화에 대한 국민적인 마인드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는 말이 한낱 구호나 수식어에 그치지 않도록 종합적이고 내실있는 문화재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김용장(부산시 북구 덕포동)

지혜모으고 화합해야 동도사문제 해결가능

얼마전 지방법원에서 동도사 총림 해제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났다는 기사를 읽었다 그러나 불보존할 동도사가 총림이든 총림이 아니든 많은 스님들과 신도들의 수행의 장일에는 변함이 없다. 동도사가 긴 시간동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것을 많은 이들이 한결같이 안타까워 하는 것도 이때문이다. 불법을 전하는 수행도량을 사람의 욕심이나 세속법의 심권으로 무너뜨리거나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일반 불자들이 스님들이 보다 한결같은 신행을 꾸려갈 수 있도록 동도사 해결의 실마리를 잡고있는 사람들이 지혜와 화합의 길을 가길 기대한다. 모든 조건을 떠나 개인의 욕심을 버리고 불교 전체를 위하는 마음만이 동도사의 조속한 안정을 가져다 줄 것이다.

김용장(부산시 북구 덕포동)

불사금 빚자 불자 우롱 장상속 법회 근절해야

3달전 수영동의 한 회관에서 '삼중스님 교화기금마련 법회'란 행사에 동참했다. 아는 도반이 법문행사가 있다고 같이 가자고 해서 아내와 함께 간 것이다. 그런데 정작 삼중스님은 나오지 않고 삼중스님의 영상비디오만 몇분 틀어주고 18만원짜리 영주세트를 나눠주어 받았다. 영주판매대

금은 교도소 등 교화기금으로 쓰여진다고 해 좋은 일에 동참한다는 뜻으로 지로로 한달에 3만원씩 3번 보냈다. 그런데 '현대불교'를 보내 이 법회가 영주를 판매하기 위한 사기성 법회라는 것을 알고 분노가 치밀었다. 스님의 복장으로 불자들을 속이고 부처님법을 파는 법회를 영주판매에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생각할수록 기가 막혔다. 더구나 신문을 보니까 이런 법회가 한두번이 아니라 전국을 돌며 수십차례 열렸다고 하니 언론에서 이런 사기성 행사는 하루빨리 그 진상을 파헤쳐 더 이상의 피해를 보는 불자가 나오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

강수옥(서울 강북구 번 2동)

승가의 세속적 생일잔치 다시 생각하자

석가모니부처님께서는 당신 생일이 라고 또는 환갑이라고 무슨 잔치같은 것을 하신 바가 없는 것으로 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신문에는 생일과 환갑, 칠순을 챙기는 세간의 풍습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도 제대로 공부한 수행자에게는 이러한 일을 일체 찾아볼 수 없으니 승가에 세속적인 형태의 요란한 생일잔치 환갑잔치 치니 하는 행사는 어울리지 않는다. 굳이 축하해야 한다면 수행자에게는 부처님오신날이 모두의 생일잔치로 대체될 수 있을 것이고 신도들이 굳이 차려주는 경우 조촐하고도 뜻있는 모임이어야 할 것이다.

동욱(전북 전주시)

봉선회 임시총회 공고

음악산문 봉선회 임시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례

- ▶일시: 2543년 9월 11일 오후 2시
- ▶장소: 봉선사 청풍루
- ▶산건: 장학금에 관하여 봉선회 활성화 기타

불기 2543년 9월 1일

봉선회 회장 인목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어산작법학교 학인 모집

본 학교는 불교가 이 땅에 전래된 이래 오늘날까지 연면히 이어온 어산(법배) 작법과 불전(의식) 전반을 연구, 계승하고 불교의식을 엄밀하게 집전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내는 것을 목적으로 조계종 교육법과 어산학교 설치령에 의거하여 설립, 중앙승가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불교의식 전문교육기관이다. 이에 어산작법과 불교의식 전반을 연구, 전수할 학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학과**
 - 어산과: 00명 · 습의과: 00명
- 교육내용**
 - 어산과: 전통의식(법배, 바라무, 착복무) 신중작법, 시련, 대령, 관육, 시식, 상주권공
 - 습의과: 불전의식(일용의식, 상용의식, 제반의식) 일용의식 - 도량식, 종승, 축원, 예경 상용의식 - 신중작법, 각단불공, 각종시식 제반의식 - 대령, 관육, 시다림, 절안, 방생 등
 - 특강: 불교의식사, 의식과 불교사상(경전), 불교와 문화예술, 비교종교의식, 장엄 한글의식, 명절의례, 평생의례 등
- 교육기간**
 - 어산과(법배, 작법): 2년(4학기)
 - 습의과(불전의식): 6개월
- 본학교의 소정 교과과정을 이수한 학인에게는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인정하는 졸업장을 수여함.

교육시간표

'99학년도 시간표			
요일/과정	어산(총산) 과정(법배, 작법)	요일/과정	습의(법배) 과정(불전의식)
월	18:30-20:00(학교강의실)	화	18:30-20:00(학교강의실)
목	18:30-20:00(학교강의실)	금	18:30-20:00(학교강의실)

- 응시자격**
 - 종현, 중법상 결격사유가 없는 대한불교조계종 승려 비구(나), 사미(나)로서
 - 은사스님이나 각 본사의 추천을 받은자
 - 각 과정(어산, 습의) 재가불자도 수강이 가능함.
- 전형방법** 서류전형과 면접
- 제출서류**
 - 1) 입학원서(소정양식) 1통
 - 2) 승적증명서 1통
 - 3) 추천서(은사스님, 또는 본사의 추천)
 - 4) 반명함판 사진 2매
 - 5) 주민등록등본 1통 (재가자일 경우)
- 접수일자** 99.8.30(월) - 9.10(금)
- 면접일자** 99.9.11(토) 오후 2시
- 개강일자** 99.9.13(월)
- 원서교부 및 접수처**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56번지 중앙승가대학교 기획실 (3층) T. 02)921-3425

대한불교 조계종 불교어산작법학교